

제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2007. 4. 12. ~ 4. 14.

‘으뜸마을가꾸기’ 사례를 통한 공무원의 역할과 과제

진안군청 정책기획단 마을만들기팀
곽 동 원 <kdw77225@hanmail.net>



마을만들기의 중요성

- ❖ 시대적 흐름 (시대의 요구)
- ❖ 기존 농업 위주의 마을개발 방식으로는 더 이상 농촌에 희망이 없음
- ❖ 마을공동체 복원의 필요성
- ❖ 마을 경쟁력 → 읍면동 경쟁력 → 시군 경쟁력
→ 도의 경쟁력 → 국가 경쟁력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이란?

■ 의 미

- 진안군만이 추진중인 내발적 마을만들기 사업
- 주민주도형, 상향식 마을개발사업

■ 주요특징

- 기존의 외부자본 의존형, 하향식 국가보조에 의한 농촌개발 방식에 대한 반성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관협력을 전제
- 마을별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육성
- 주민 모두가 다같이 잘 사는 농촌공동체 복원운동



사업 추진배경

■ 기존 농촌/농업 개발방식에 대한 반성

- 농업구조개선사업(42조), 농특세사업(15조)은 어디로?
- 농‘업’이란 산업적 접근의 한계, ‘규모화’란 신화(神話)
- 농가 단위 지원의 부실구조, 통제력을 상실한 마을공동체 사회
- 주민 요구와 단절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하향식 방식의 한계

■ 변화하는 국제 농업환경에 대한 대응력 강화

- WTO, FTA 등 시장개방 : 농가 개인의 대응으로는 극복 불가능
- 국가 대응의 한계 ➡ 마을의 공동대응력 강화
- ‘양’보다 ‘질’, ‘물질’보다 ‘문화’가 경쟁력을 가지는 시대

➡ 새로운 전망, 시대적 흐름에 기초한 농촌 마을공동체 복원



사업의 이론적 배경

■ 개념

- 기본 동력 : 지역의 내부자원(인적, 물적)을 중심으로
- 개발 방향 : 지역 주민의 아이디어에 기초
- 개발 이득 : 지역민에게 귀착되도록
- 계획의 수립과 집행 주체 : 지역 주민 자신

⇒ “지역 주민의”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 주민을 위한” 마을 발전

⇒ “아래로부터의 발전 방식”

■ 원칙

- 환경 보전, 전통문화 계승, 농촌 장기경쟁력 강화의 기초
- 주민 공동합의 훈련과정의 중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 “더디지만 함께 더불어 발전하는 길”



사업의 목표

- 생산, 가공, 유통, 도농교류가 일체화된
고부가가치 농업 통합시스템(total system)의 실현
- 환경친화적 특화작물의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업모델의 구축
- 도.농교류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相生)하는 마을 건설
- 농업과 농촌관광, 향토문화가 어우러진 마을 건설
- 주민과 지역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마을 건설



대상지구 선정과 특화사업

■ 대상지구 - 읍면 추천

- 11개 읍면당 발전가능성이 높은 1개 지구(마을)
- 읍면에서 선정하여 군에 신청. 모델마을, 선도마을 방식

■ 선정기준 - 군 조례

- 젊고 의욕적인 지도자가 있고, 단합이 잘 되는 마을
-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작목반 조직이 있는 마을
- 특수작물이나 기타 특별한 소득작목이 있는 마을
- 도농교류 행사경험과 독자적 유통망을 갖고 있는 마을
- 정책수행 및 행정협조에 적극적인 마을

■ 대상사업

- 지역특색에 맞고 경쟁력 있는 친환경적 작목중심 특화
- 소득사업 및 소득 기초가 되는 관련 사업

대상지구 및 특화사업





주요 추진경과

- 전임계약직(경제학박사) 채용 : 2000년 12월
- ‘읍면지역개발계획’ 이름으로 첫 시행 : 2001.1월
-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명칭 변경 : 2003.1월
- 조례 제정, 군/읍면/마을 추진위원회 구성 : 2003. 7월
- ‘으뜸마을가꾸기’ 5개년 계획 표본안 작성 : 2003. 9월
- 특별교부세 국비(10억) 확보 : 2003.10월(2005년 집행)
- 홈페이지(<http://jinan.jeonbuk.kr/top/>) 제작 : 2003.12월
- (이후 전임계약직 공석으로 1년간 사업 지체)
- 사업 담당 전임계약직(농학박사) 채용 : 2004. 12월
- 도비(5억원) 확보 : 2004.12월(2006년 사업진행중)
- 지구 추진위원장 협의회 구성: 2005년 1월
- 진안군 마을간사 지구별 배치 : 2006. 3월(11명)



2005년 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예산 : 국비 특별교부세 10억원
- 마을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읍면 경유, 군에 제안
- 2004.12, “으뜸마을가꾸기추진위원회”(조례) 심의, 통과
- 대상지구별 예산 : 약 9천만원 내외. 총23개 사업(공동사업 제외)

■ 11개 대상지구 공동사업

- 주민교육 : 마을별3, 권역별2, 전체2회, 선진지 견학 3회
마을리더 2박3일간 3차 합숙교육
- 연구용역 : 대상지구별 마을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컨설팅
- 안내판 : 주민정체성 강화, 마을홍보를 위한 특색있는 입간판

■ 11개 대상지구별 특화사업 - 총23개 사업

- 마을민박 설치 3개소, 가공(체험)시설 유형 6개소
- 기타 야생화 단지, 꽃길, 감나무공원 및 단지 등



2006년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예산 : 도비 5억원
- 마을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읍면 경유, 군에 마을단위 사업제안
- 2005.12, “으뜸마을가꾸기추진위원회”(조례) 심의, 통과
- 대상지구별 예산 : 약 60,000천원 내외(자부담 15,000천원포함)
- 총18개 사업(2005년도 사업의 연계, 보완 사업 중심)

■ 11개 대상지구별 특화사업 - 총18개 사업

- 농특산물 가공시설(2005년) ➤➤ 농특산물 기계장비 구입 (2006년)
- 민박체험(2005년) ➤➤ 간이천문대 설치 (2006년)

☞ 모든 사업 정책개발팀에서 일괄 추진 - 일관성, 지속성 담보



사업투자예산

년도별	총투자 사업비	분야별 투자사업비 (백만원)					
		소득 사업					마을 정비 등
		소계	국도비	군비	융자	자담	
계	7,821	4,269	914	1,512	1,180	1,406	2,809
2002	1,753	743	30	220	191	302	1,010
2003	3,329	1,951	40	697	608	606	1,378
2004	1,739	1,516	42	595	381	498	223
2005	1,061	863	802	—	—	61	198
2006	667	450	335	—	—	115	217

※ 2004년까지는 대상지구에 투자된 실과소 사업예산을 집계.

※ 2005년은 국비 특별교부세 10억원. (-)은 미파악. 2006년은 도비 5억원(복권기금)



사업성과 - 1

- 투자예산의 효율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 주민주도형(계획 결정, 추진) 사업으로 낭비요인 최소화
 - 대상지구는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각종 국비 지원사업 유치
 - *11지구 중에서 7개 마을 지원(총계 약54억원 규모)
- 주민주도형 개발방식의 정착
 - 농촌형 민관협력체계(로컬 가버넌스) 모델 구축
 - * 잘못된 행정 관행의 수정 계기 제공
 - 농가 개별보조가 아닌 마을공동사업 지원 모델 구축
-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효과
 - ‘우리도 합심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단초 제공
 - 마을공동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 의식 전환
 - 마을간 선의의 경쟁의식 확산



사업성과 - 2

■ 지역경제에 대한 직/간접적 파급효과

- 마을별 자원 활용한 지역특산물의 발굴 및 육성에 기여
- 진안군 특산물의 다양화와 고급화에 기여
-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촌관광객 급증
(예, 2004년 연간, 능길: 1만명, 무릉: 5700명)
- 농특산물 직거래 급증, 타 마을로 모델 확산
- [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연수원 유치 기여

■ 주민 자부심 증대 및 의식 전환

- 으뜸마을로서의 주민 자부심 증대, 일체감 강화
- 주민주체적인 자발적인 노력의지 확대, 강화
- 행정과의 협조의식 강화, 마을리더의 행정절차 이해도 상승



사업성과 - 3

- 언론보도 등(2002년 - 2005년, 만48개월)
 - 주민교육 및 좌담회 : 168회 (마을별 평균 15회 이상)
 - 주요 신문, 방송 등 언론 보도 : 총45회 이상
 - 해외선진지 견학 : 3회, 47명, 국내선진지 견학 : 9회, 555명
 - 중앙부처 및 언론 관심 집중과 특별교부세 배정(총15억원)
 - 대상지구별로 중앙부처 사업 예산 확보 급증

년도별	언론 보도	선진지 견학		주민교육 및 간담회
		국내	해외	
계	78회	11회(605명)	2회(38명)	201회
2003	12회	5회(425명)	1회(23명)	37회
2004	5회	1회(40명)	0	48회
2005	26회	3회(90명)	0	61회
2006	35회	2회(50명)	1(15명)	55회



사업의 반성

■ 지역 공무원의 관심 부족

- 마을만들기에 대한 철학 부재로 상호 협력이 어려움
- 단체장이 바뀌면 바뀔 것이라는 일회성 사업으로의 인식

■ 마을대표 중심의 추진 한계

- 주민 갈등의 원인으로 금부상 마을공동체 형성 저해
- 마을 대표가 없으면 마을이 없음

■ 주민의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

-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하려는 근시안적 자세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부족 (경제적 접근)



공무원의 일반적 인식

-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대명사
- 지역적 관점보다 자기 업무적 관점 팽배
- 인사에 관심 고조
- 상호협력보다는 무관심, 업무 떠넘기기 관행
-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 및 자극 부족
(신상필벌 부족)



주민 불신 해소가 마을, 지역발전의 첫 걸음

으뜸마을가꾸기 사례 + 공무원 학습 소모임 운영 사례



공무원의 중요성

-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정부 시대로 (획일→다원)
- 지방화시대 지자체 경쟁 체제 돌입 (자질향상)
- 공무원은 정년 시까지 지역과 함께
(30년 정도 근무, 단체장은 바뀌어도 공무원은 남는다)
- 농촌지역 인구감소 상대적 공무원수 증가 추세
(거기에 인허가권, 예산집행 등 권한까지)

☞ 공무원의 가치관, 철학, 마인드 필요

으뜸마을가꾸기 = 마을간사 + 공무원 학습 소모임



공무원의 역할

■ 공무원 자발성을 이끌어 내는 철학을 정립

- 공무원 교육의 방법의 전환(신규공무원 등 교육 커리큘럼의 변화)
- 공무원 학습 소모임의 활성화(마을·지역 중심의 사고 확산 계기)

■ 지속가능한 업무협조 시스템 만들기

- 마을개발 행정 TF팀 구성(마을만들기의 상호 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
- 타 업무도 중요하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 협조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자세 확립

- 다른 직원이 하지 않은 일을 찾아서 하자.
- 다른 직원이 하기 싫어 하는 일을 찾아서 하자.

행정이란? 주민이 자치의 마음을 갖도록 지원하고 도와 주는 것



전국 지자체 최초의 상향식 마을개발사업 !

감사합니다

마을에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생각
그리고 마을에 대한 애정 없었기 때문이다.